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8호 【루계 제25817호】 주제 106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월16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월 16일 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장물인 오수용동지, 박태성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인 홍영철동지, 조용원동지, 유진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들 현지에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1977년 3월 16일에 창립된 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대규모의 자동차 생산기지로 창성강화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볼소 공장리전도 잡아주시고 공장에서 생산한 첫 증형자동차의 이쁨을 《대백산》호로 명명해주시였으며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고무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총조립직장, 종합가공직장, 제관직장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경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우리 식의 대형분전기체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고 치하하시였다.

완성단계에 들어간 대형분전기체가 불수독 멧잇고 동력전달장치들이 원만히 동작하는것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대형분전기체가 완성되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게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고있는 대형분전기체여서 정이 꼭 들고 더없이 기쁘다고 하시면서 당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공장로동계급의 투쟁에 의하여 당에서 정해진 날자에 주제적인 대형분전기체가 세상이 보란듯이 탄생할수 있게 되었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보살피실속에 3월16일공장이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올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지난 기간 많은 자동차들을 생산하여 사회주의대건설

들과 인민군대에 보내줌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었다고 하시면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공장로동계급이 당에서 대단히 중시하는 일에서 살며 투쟁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전무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도록

정해진 날자에 주제적인 대형분전기체가 세상이 보란듯이 탄생할수 있게 되었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